

특별기획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

김제지평선축제 D-100일 맞아 성공적 개최 기원



부안소방서, 위도서 복지나눔 행사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가 21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에서 펼쳐졌다.

이날 부안소방서 직원과 위도면 의용소방대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행사는 전북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 화재를 예방하고자 소방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사다.

특히 부안소방서는 위도면에 위치한 각 마을회관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어르신들 혈압 및 당뇨 체크 등의 구급서비스, 안전시설점검 등을 통해 복지와 안전에 힘을 보태었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어려운 우리 이웃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행사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공중보건교육 실시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박래만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인사 25명에 대하여 보건업무 및 전문의학 정보교환을 위한 직무교육을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은 공중보건업무 종사자에게 앞서 보건의료정책, 보건행정 등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박래만보건소장은 직무교육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친절한 진료 서비스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청다의 의료 봉사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순 보건위생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김제시의 68세 노인인구가 28,874인 초고령화 사회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의료진과 교육공공보건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진봉면 체납액 일소 매진

김제시 진봉면(면장 이승엽)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6월을 체납세 징수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자 및 직원들로 마을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진봉면은 우선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개인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거주불편·수취거절·이사로 인한 반송 사유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세웠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서림지구대, 교통사고 예방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여름철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림지구대는 시가지 다중운집장소인 타미널상설시장 등 8개소 횡단보도 주변에 "교통사고 예방"과 "발생위험,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홍보배너를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강종삼 서림 지구대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 결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기원 및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D-100일을 앞둔 21일 주 행사무대에서 「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의 전초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갈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진식 김제시장,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 정희은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 임종기 김제전통가장연구회장을 비롯한 제전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순 농약단의 열린 농약 시연, 개막식 공식 건배주 담그기, 성공기원 퍼포먼스 전통주 시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규모 행사의 공식 건배주는 행사의 성격과 개최지역의 특성을 담은 지역 대표주류를 선정하여 만찬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김제지평선축제의 경우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로서의 품격과 최대 포용성을 고려하여 김제 지평선에서 직접 생산된 쌀, 누룩, 물 등을 이

용, 직접 담근 후 100일을 숙성하여 제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리셉션에 공식 건배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금번 개막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시작으로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연속 대표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금일부터는 축제 관계자 시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남은 100일 동안 완벽한 축제장 조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 범시민적인 손잡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 도로 개설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며 터널 215m를 포함 총연장은 540m로, 내년 12월까지 총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읍시, 내달 죽림터널 개설공사 본격 착공

길이 215m · 폭 13m의 2차선

정읍시는 21일 죽림터널 개설공사를 7월 중으로 착공한다고 밝혔다. 죽림터널 개설공사는 연지동 샘골다리에 앞서 상평동 용흥마을과 정읍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215m를 포함한 연장 540m, 폭 13m의 2차선 도로를 개

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죽림터널 개설을 위해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이 달 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방침으로, 먼저 올해 확보된 예산 44억을 투자하여 터널 215m를 우선적

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죽림터널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낙후된 상평동 용흥마을의 개발 촉진과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짐으로써 교통비용의 절감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 호룡, 김제사랑장학재단에 3억원 기탁 '훈훈'

(주)호룡 (대표이사 박정현)은 21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에 장학금 3억원을 전담했다. (주) 호룡은 김제시 민정음에 1990년 1월에 세워진 기업으로 주요생산품은 고가사다리차, 고소작업차, 크레인, 전동크레인 등으로 2013년 한국무역협회 오비엔블 수출의 탐을 수여 받

은 우수기업이다. 이날 박정현 대표이사는 김제시정을 방문 이진식 이사장에게 "김제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 꿈을 위해 경제적 격정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식 김제시장은 "이 장학기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

로도 김제시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90억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초경 전후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 나서

정읍시보건소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정읍시보건소가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보건소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이하 여성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클리닉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는 2003.1.1. ~ 2004.12.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며, 정읍지역 내 18개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기는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미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며 "여성클리닉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춘기 성장 발달'과 '초경'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도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무료로 제공 할 계획

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전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300여명이 발병하고 연간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보건소는 "자궁경부암은 HPV백신 접종으로 70% 예방 가능한 만큼 꼭 접종받아야 한다"며 "특히 접종 후 관찰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 시간을 이용해 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성클리닉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adc.gakr)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 고향 정읍 인구 15만 회복' 캠페인에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동 주민센터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읍연지동, 인구 15만 회복 캠페인 전개

연지동주민센터는 지난 20일 정읍역 광장에서 내 고향 정읍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에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동 주민센터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16분에 정읍역에 도착하는 용산발 KTX를 이용, 출근하는 100여명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 전입 시의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전입혜택 내용과 광장의 주요 문화관광지 등을 담은 홍보물과 정읍 관광 물티슈 등을 배부하며 정읍으로의 주소 이전을 독려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구회복을 위한 운동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과제"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종규 부안군수가 2017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20대 국회를 방문.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각 상임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직접 호소 지역현안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김종규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 김중희 국회의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등 각 상임위원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부안 에코테이먼트 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8건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부안 에코테이먼트 거점 조성사업과 부안읍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부안군 상

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김현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등 소관 상임위원장을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안 민복의 고장 부안 실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디라도 발품을 팔아 국가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제주도 전시된 작품은 부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염색한 쌀을 활용한 미술작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해 서울특별시 등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다.

부안쌀 예술화 '부안라이스아트전'

제주 특별자치도청서 24일까지 전시

청정 해풍을 머금고 지란 부안쌀을 염색해 만든 미술작품전 '부안라이스아트전'이 제주특별자치도청 별관 로비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제주도 전시된 작품은 부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염색한 쌀을 활용한 미술작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해 서울특별시 등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나해 기성여건이 좋아 사상 유래 없는 대풍을 얻었으나 쌀값하락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새로운 홍보 방안으로 염색한 쌀로 뽕뽕한, 녹비작물 재배 등으로 유기질 함량을 높이고 생산이력제 도입, 품질인증(GAP)을 받은 쌀을 염색 출하하고 있다. 부안 쌀은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현재 전국 132개 홈플러스 매장과 익스프레스 250개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입점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나해 기성여건이 좋아 사상 유래 없는 대풍을 얻었으나 쌀값하락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새로운 홍보 방안으로 염색한 쌀로 뽕뽕한, 녹비작물 재배 등으로 유기질 함량을 높이고 생산이력제 도입, 품질인증(GAP)을 받은 쌀을 염색 출하하고 있다. 부안 쌀은 4년 연속 국가브랜드